



대통령과 함께 한 희망나무심기

서울 성북초등학교 푸른숲선도원 50명은 북악산에서 열린 62회 식목행사에 참가했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 내외, 산림공무원과 임업인, 지역 주민 250여 명과 함께 쇠뿔해가는 아까시 나무를 제거하고 2천여 그루의 소나무를 심으며, 푸른 숲 가꾸기에 대한 의지를 되새겼습니다.

